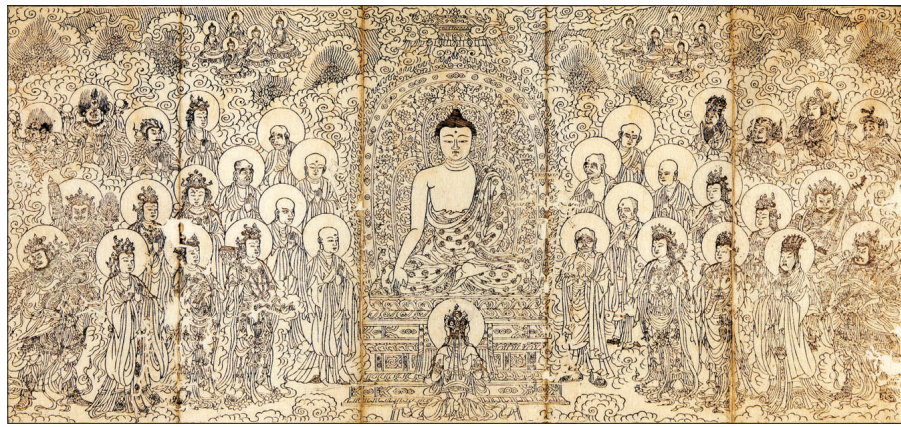


# 조선最高 목판본 묘법연화경 공개

## 동국대 108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12월 19일까지

변상판화 속에 구현된 다양한 부처님의 세계가 한눈에 펼쳐진다. 동국대박물관은 12월 19일까지 개교 108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108번뇌로부터의 해탈: 각각불심(刻卽佛心)'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1459년(조선 세조 5년) 제작된 조선시대 최고의 '목판본 묘법연화경'이 국내 최초로 일반에 선보인다. 이는 세종의 며느리이자 광평대군의 부인 신 씨가 발원해 간행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1459년(조선 세조 5년) 제작된 조선시대 최고의 '목판본 묘법연화경'이 국내 최초로 일반에 선보인다. 이는 세종의 며느리이자 광평대군의 부인 신 씨가 발원해 간행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1459년(조선 세조 5년) 제작된 조선시대 최고의 '목판본 묘법연화경'이 국내 최초로 일반에 선보인다. 이는 세종의 며느리이자 광평대군의 부인 신 씨가 발원해 간행됐다.

### 광평대군 부인 신씨 발원 제작

### '보살형 청문자' 등장 주목

### 조선초기 작품 중 단연 으뜸

가능성이 높다. 묘법연화경은 전체 7책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변상도가 수록된 1권과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쓴 발원문이 포함된 7권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법화경 최초의 연해본으로 1463년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동국대 도서관 소장)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판본은 세조가 친히 구결을 다는 등 왕실에서 주도적으로 간행에 참여했는데 신 씨 발원의 법화경변상을 모본으로 했다. 1459년 본에 비해 각 장상 사이에 여백이 있고 보수(寶樹)나 보개(寶蓋), 시방제불의 모습 등 도상의 표현방식과 배치 등이 조금씩 다르다.

이밖에도 '지장보살본원경 언해' (1791

년, 송광사 석보박물관 소장)도 주목할 만하다. 1매의 판각에 각기 반 곱씩 위태천과 지장보살도를 새겼다. 위태천은 전형적인 무장형이며, 지장보살도는 지장삼존과 6보살만을 새긴 간단한 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각에 봉안되는 지장보살도의 도상으로 차용되어 왔다.

이밖에도 동국대박물관은 중앙도서관, 송광사 석보박물관, 목야박물관, 불교 천태중앙박물관과 개인 등이 소장한 불교 판화작품 등 47점을 전시한다. 동국대 박물관장 정우택 교수는 "목판화는 백학번뇌에서 벗어나 무애자재의 깨달음, 곧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깊은 불심과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특별전은 조선시대 판본경전 특히 변상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로, 판본변상도의 시기적 변화는 물론 개별 작품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 '빛으로 통하다' 연등회 장엄전

11월 25일~12월 4일

연등회(종교무형문화재 제122호)는 11월 25일~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빛으로 통하다-연등회장엄전'을 연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악기등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 열 작가가 한지와 대나무를 이용해 재현한 악기등과 연등회 장엄 도감 정명 스님의 천연염색 초롱등이 함께 전시된다. 악기등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등으로 주악천인이 들고 있는 등이다. 비파등, 동발등, 북등, 생활등, 세요고등, 아쟁등, 태평소등, 해금등 8가지 악기는 내소사 대웅전 천정 단청의 전통악기문양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초롱등은 보문동 미타사의 노스님으로

부터 기증받아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50여년 된 종이가 사용돼 눈길을 끈다. 여기에 연등회장엄 도감 정명 스님이 천연염색재를 물 들어 제작 주목된다. (02)2011-1745

정혜숙 기자

## 정윤영 개인전 '안에-있음'

정윤영(27) 작가의 개인전 '안에-있음'이 12월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갤러리 마하에서 열린다.

정 씨는 이번 전시에서 고려불화의 채색 기법인 '배채법(背彩法)'과 순수서양 회화 방식을 접목시킨 회화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경험한 투병생활과 기억이 담긴 상흔에 대한 이야기를 수예적인 필선과 문양 그리고 겹겹이 배제된 비단에 배어든 화사한 색깔의 꽃을 통해 그려낸다. 정윤영 작가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공부했으며 국민대대학원에서 서양회화를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핑크빛아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548-0547 정혜숙 기자

# BTN 생방송 '보시' 100회 특집 맞아

11월 26일 특집 생방송

BTN생방송 '보시' (연출 류건욱·박동건PD)가 11월 26일 100회를 맞아 특집 생방송을 진행했다. 불교사회복지 활동 소개, 기부문화 대중화, 재능보시활동 가능성 발견 등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보시'는 2013년 1월 2일 첫 방송 이후부터 매주 오후 2시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왔다.



BTN생방송 '보시' (연출 류건욱·박동건PD)는 2013년 첫방송 이후 100회를 맞았다.

매회마다 어린이,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 등의 사연을 소개하고, 응원문자(#1252)와 보시후원계좌를 통해 지금까지 약 3억 원을 모금했으며, 86명의 소외 이웃을 지원했다. 모금된 후원금은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생활비, 장학금 등으로 지원됐다.

100회 특집에서는 지난 2년 간 출연자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다섯 가정의 최근 모습이 소개됐다. 2014년 2월 5일 '네 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필리핀 엄마, 미나 씨' 사연은 방송 당시,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14년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미나 씨는 뼈대없는 살림이었지만 두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중, 3년 전 남편의 당뇨가 시작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자활사업장에서 도시락을 만드는 미나 씨의 한달 월급은 고작 65만원. 그러다보니 월세를 2년 동안 내지 못해 내 식구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미나 씨 가족은 보시 후원금의 도움으로 방 3칸 짜리 집으로 이사해 밝은 웃



출연자에게 보시금을 전달하는 제작진

### 기부문화 대중화 위해 첫 방송

### 응원문자와 보시후원계좌 통해

### 총 3억 원 모금 소외계층 지원

음을 되찾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라오스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사무국장 조한곤 씨, 방남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살며 지적

장애 딸까지 돌보는 이용필 씨 등의 주인공들을 다시 만나본다.

사연만큼이나 후원 에피소드도 다양하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힘겹게 살면서도 수급비의 일부를 보시해주었던 후원자가 있었는가 하면, 서문사 무공 스님은 신도들과 쌀 100포대와 라면을, 명덕사 우정 스님과 신도들은 소외된 이웃들의 주거지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보시' 담당 PD 류건욱 제작국 부국장은 "매주 TV로 사연을 소개하고 생방송을 진행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100회를 맞고 보니 그만큼 보람된 순간도 많았다. 그리고 100회까지 진행하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보시'에 동참해주셨던 스님과 불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부처님 품안 같은 더욱 따뜻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포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 "세상을 밝히는 노래 만들고 싶어요"

BBS찬불동요제 대상 수상한 이재성 작곡가

불교방송(사장 이재원)이 주최하는 '제5회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에서 일곱살짜리 중창단의 '산사로 오세요' (작곡 이재성·작사 배정순)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곡을 작곡한 이재성(사진) 씨(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41)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틈틈이 동요를 작곡해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진 실력파 작곡가다.

이번 대상 수상곡 '산사로 오세요'는 풍성한 자연이 함께하는 산사로 오라는 내용을 밝고 경쾌하게 담았다. "2012년에는 '부처님께 가는 길'로 인기를 받았는데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춘천교대 재학 시절 음악교육을 전공했고 현재는 수원대 일반대학원 합창지휘과에 진학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 늘 산사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곡은 그런 느낌을 살려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늘 불교문화 속에서 생활해온 이 씨는 불심의 마음을 담아 이번 곡을 작곡했다. 이 씨가 최초 작곡한 곡이 바로 우리는 선우 청년부에서 활동하며 만든 캠프송이었다고 하니 불교는 그의 음악 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남 MBC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에서 '어린이 세상'으로 은상을, 울산 MBC 서덕출 창작동요제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으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동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이 씨는 "앞으로도 행복을 전하는 노래로 세상을 밝히는 작곡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씨는 현재, 서울초중등컴퓨터음악교육연구회 회장, 한국동요작곡가협회 운영



위원, 한국동요문화협회 회원, 한국서정작가협회 회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찬불 동요제 실황은 BBS 라디오(12월 5일 오후 4시)와 TV(12월 11일 오후 2시)를 통해 방송되며 입상작들은 방송 콘텐츠로 방송을 통해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 고흥 해수관음상 영운사 모연문

귀의삼보하옵고,

동북아 '우주항공허브'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 자리한 해련산 신선대 영운사 해수관음상은 서방정토 서해바다에 '용공·용양·방생' 기도도량으로, 불자들이 경건하 예배하고, 소원을 빌면 32응신을 나투시어 모든 일이 잘 성취되는 영험기도 도량입니다.

금번 영운사에서 대웅전 법당 건립의 어려움으로 기와 불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려, 정법실현을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영운사 주지 혜양 합장 -

불사 동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농협 351-0311-0956-53 (영운사)

(동참하신 분은 010-2614-8730으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주소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752-1(영운사 주지 혜양 010-2614-8730)

